

研究노우트

禹長春博士의 歷史的 比重과 그 位置

金 泰 昱

前園藝試驗場 庶務課長

- I. 緒 言
- II. 禹長春博士의 業績概要
- III. 農業發展의 歷史的 事例考察
- IV. 禹博士에 대한 農業史的 再照明의 必要性
- V. 結 言

아가고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당연히 이러한 것을 바로 잡아 이러한 분들이 우리의 역사에서 차지하여야 할 比重과 그 位置를 명백히 찾도록 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道理요, 또한 責務라고 생각된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禹長春박사의 歷史的 比重과 그 위치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그가 남긴 業績을 간략하여 뒤돌아 보고, 다음으로 우리 歷史에 수록되어 있는 農業 및 기타 部門에서 先人들의 歷史的 功績과 禹長春박사의 그것과를 相互考察해 본 다음, 어찌하여 禹長春박사가 그 큰 功績에도 불구하고 그가 別世한 지 25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이토록 傳說的 人物로 忘却되어 가고 있는지를 糾明해 보는 동시에 그의 功績의 歷史的 價値를 再照明함으로써 그가 있어야 할 歷史的 位置를 찾는 데 共同의 努力을 促求하고자 한다.

I. 緒 言

禹長春박사가 逝去한 지 25년이 된 오늘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름은 곧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사람」으로만 연결되고 있을 뿐이고, 이분이 무엇을 하였고, 그것이 나라를 위하여 위하여 얼마나 功績이었는데 관하여는 대부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實情이다. 따라서 이분의 心血을 기울여 이룩해 놓은 業績은 국민의 腦裡에서 사라져 가고, 다만 傳說的 人物로서만 겨우 기억되고 있는 형편인데, 이와 같은 우리의 歷史發展에 크나큰 功績을 남긴 분이 우리 歷史上 아무 기록도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忘却의 저쪽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悠久한 역사 속에서 과거와 미래를 살

II. 禹長春博士의 業績概要

禹長春박사는 1898년 日本에서 출생하여 東京帝國大學 農學實科를 졸업하고 試驗場에 들어가 研究生生活을 계속하면서 전후 19편의 論文을 발

표하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부라 시카屬에 있어서 油菜의 實驗的 合成 및 受精의 獨特한 樣式과 連關된 基因分析」이라는 論文이다. 禹박사는 이 논문으로 博士學位를 取得하였다. 이 논문이 바로 다아윈의 進化論을 修正 내지는 補完하였다는 세계적으로 有名한 論文으로서 속칭 禹長春박사의 「種의 合成 論文」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또한 이 分野 研究의 嚆矢가 되기도 했다.

禹박사의 논문 가운데는 또한 「페추니아에 있어서의 重瓣花의 遺傳」이라는 것이 있다. 이 논문은 西洋사람들이 무척 좋아하는 페추니아의 꽃을 100퍼센트 겹꽃이 되도록 種子를 育種하는 방법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日本의 한 種苗商이 비밀리에 이 방법을 獨占하여 겹꽃種子를 만들어 巨金의 利得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美國에서 이 種子를 自體生産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후였다. 美國사람들 중에는 이 꽃을 「禹박사의 꽃」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였다.

禹박사는 試驗場으로부터 다끼이 研究農場長으로 轉任하여 優良種子 育成的 實務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의 民間育種은 대부분 理論이 없는 經驗技術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사 좋은 品種이 개발되어도 그 質의 維持가 어려웠다. 이에 禹박사는 民間育種을 조장하기 위하여는 育種技術의 學問的 普遍性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 「菜蔬의 育種技術」을 발표하고 “育種의 技術化”를 위한 理論과 體系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科學的 育種技術 확립에 중대한 意義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에서 언급된 豫言의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實用化되었다.

禹박사는 우리나라가 解放이 된 뒤 1950년에 그리던 故國으로 돌아와서 1959년에 서거할 때

까지 불철주야 국가민족을 위한 일에 盡力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業績을 이루었다.

(1) 우리나라는 1945년 정치적 解放은 되었지만 日本의 植民地 愚民政策의 결과 獨立國家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資本도, 工場도, 機械도, 農藥도, 肥料도, 種子도 없었을 뿐 아니라 더더욱 난처하였던 것은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움직여 가는데 필요한 知識이나 技術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필요한 物資를 國交가 正常化되지도 않았던 日本으로부터 密輸入해 올 수밖에 없었고, 더우기 가장 시급하였던 것이 食糧이었는데 쌀 다음 가는 채소 종자의 공급이 두절됨으로써 生産은 극도로 低下되었으며 따라서 日本으로부터의 種子의 密輸는 막아낼 길이 全無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때에 禹박사는 6·25동란 중에도 優良種子 生産體系를 착착 진행시켜 1950년대말에는 완전히 自給體系가 확립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分野만은 제일 먼저 日本의 農業植民地로부터의 脫皮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뿐 아니라 이 分野가 또한 제일 먼저 世界 先進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우리나라 食糧作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감자인데 이것 또한 解放 후 「씨감자」의 공급이 두절됨으로써 單位面積의 生産量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었다. 禹박사는 이를 우려하여 無菌種薯 生産의 基礎作業을 서둘러 시행하고, 無菌種薯의 증식을 大關嶺 농민들에게 담당하도록 하여 이를 買上하고, 그것을 전국 栽培農家の 손에 들어가게 하는 體系를 완성함으로써 감자 生産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국민의 食生活을 윤택하게 하였다. 또한 메마르고 貧困하던 大關嶺에 「감자. 돈」이라는 種薯買

上畚이 쏘아짐으로써 그곳 농민들의 침울하던 얼굴에 화사한 웃음을 띠게 했던 것은 또 하나의 커다란 成果였다.

(3) 그 당시는 모든 作物을 재배함에 있어 人糞尿를 사용하는 것이 常識이었고 온 국민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을 때였으므로 薰風과 더불어 풍겨오는 이 냄새가 바로 農村의 냄새이기도 하였던 時節이었다. 이때에 禹박사는 우리가 先進國民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寄生蟲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보다도 당장에 國際적으로 창피한 것을 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걱정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던 美國을 위시한 유엔軍은 물론 모든 外國인들이 韓國에서 生産되는 채소類를 일체 먹지 않고 日本에서 또는 오끼나와 등지에서 들여다가 먹고 있었던 것이다. 禹박사는 우리가 이러한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하루빨리 우리 손으로 이들에게 寄生蟲 없는 채소를 공급함으로써 國威를 宣揚하고 동시에 外貨도 획득하여 國家經濟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에 禹박사는 「淸淨栽培」方式을 적극 권장하여 유엔軍과 外國인이 投宿하는 호텔에 그 채소를 納品하도록 설득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淸淨栽培 普及의 기반이 마련되어 軍納業體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4) 禹박사는 大關嶺에서 無菌種薯를 生産하도록 함과 더불어 端境期에 園藝作物을 재배하도록 그 기술을 지도하고 권장하여 大關嶺의 農地 利用度を 높이도록 하여 그 生産性を 크게 높임으로써 그곳 農民들의 收益을 極大化하였다.

(5) 禹박사는 처음 試驗場의 機構를 만들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花卉科를 설치하고 國內外에서 花卉品種을 수집하는 동시에 栽培法 開發에 착

수하였다. 그 당시의 實情으로서 상상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국민들의 生活이 塗炭에 빠져 있던 때라, 먹지도 못하는 주체에 꽃을 재배하는 科를 둔다는 것은 國庫의 낭비라는 反對도 없지 않았다. 禹박사는 “지금은 경제적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태로만 살아 갈 수는 없고 또한 살아가서도 안되며, 하루 빨리 우리도 꽃과 더불어 아름다운 생활환경 속에서 삶을 즐기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고, 資源이 없는 우리와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들 농업기술자의 노력으로 장차 네덜란드처럼 꽃종자와 生花를 外國으로 輸出하여 外貨獲得을 꾀하여야 할 것인데, 차차 알게 되겠지만 얼마가지 않아 서울에는 틀림없이 꽃 都賣市場이 설 것이고, 輸出도 놀랄만큼 伸長될 것이니 두고 보라”고 장담했었다. 이러한 禹박사의 先覺의 叡智에 의하여 오늘의 花卉園藝의 礎石이 마련된 것이다.

(6) 禹박사는 “先進國에 있어서는 農民이 필요로 하는 각종 種子는 民間 種苗商들이 각기 特性있는 좋은 種子를 開發 育種하여 공급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아무도 優良種子를 育成할 育種學的 知識을 갖지 못하고 있음으로 부득이 高度의 試驗研究를 하여야 할 國立試驗場이기는 하지만은 우선 시급히 필요한 種子를 만들어 농민에게 공급하는 한편으로 育種과 試驗研究에 필요한 知識을 전수함으로써 研究業務와 民間育種에 필요한 後繼者를 양성하는 사업을 병행해 나가야 하겠다”고 주장하고 그대로 실천하였다. 이에 따라 그의 뜻이 이루어져 民間種苗業界의 發展이 오늘에 이르렀는데, 현재 이 분야에서 활동 중인 育種技術者의 대다수가 禹박사의 直接, 間接的 敎示를 받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事業들을 불철주야 추진하면서

各地를 돌며 學校에서, 또는 農民들에게 講演 등으로 「農民의 科學化」를 주장하고, 農業의 科學化를 이룩함으로써 비로소 이 民族이 행복하게 잘 살아 갈 수 있다는 希望과 찬란한 비전을 펼쳐 보이던 禹長春 박사는 1950년대의 우리 국민의 존경하는 「빛」이었고, 위로는 대통령 및 여야 정치인을 위시하여 국민학교 아동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偶像的 存在」이기도 하였다. 그는 이러한 功績으로 우리의 5천년 歷史에서 農業分野에서는 처음으로 國家의 最高勳章인 文化褒章을 받았다.¹

Ⅲ. 農業發展의 歷史的 事例考察

農業 및 기타 部門에서 우리 歷史에 수록되어 있는 先人들의 歷史的 功績과 禹박사의 그것을 상호 고찰해 봄에 있어서 그 作業을 單純化하기 위하여 가장 標準的이라고 인정되는 歷史敎本인 中學校 및 高等學校의 國定 國史 敎科書를 기준으로 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 國定 國史 敎科書는 先史時代로부터 第5 共和國 성립에 이르는 동안의 歷史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禹박사가 살다 간 1950년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念頭에 두고 이를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로 거론하여야 할 것은 農業發展에 貢獻한 農書들이라 하겠는데 敎科書에 收錄되어 있는 農書들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²

衿陽雜錄：姜希孟

○農事直說：鄭 招

林園經濟志：徐有築

種 譜 譜：徐有築

○農家集成：申 溈

甘 譜 譜：姜必履

甘 譜 新 譜：金長淳

○課 農 少 抄：朴趾源

穡 經：朴世堂

山 林 經 濟：洪萬選

海 東 農 書：徐浩修

이상의 農書들은 물론 농업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農書로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중의 하나인 「農事直說」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책은 世宗이 1428년에 王命으로 忠淸·全羅·慶尙監司에게 관행되고 있는 耕種法을 老農들에게 물어서 보고토록 하여 그 당시 農事를 管理하고 있던 工曹의 責任者인 鄭招와 卞孝文 등이 이를 정리 완성하여 분포한 官撰事業으로 엮어진 農書이다.

이 農書는 물론 勸農敎材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農書로 알려져 있지만, 이보다 「撮要新書」가 앞선다는 說도 있으나, 여하간에 이 책이 中國 農學의 從屬的인 관계에 있던 우리나라 農學 및 農業技術을 中國으로부터 脫皮시켜 自主的이고 獨立的인 方向을 설정하게 된 것이며,³ 이는 “1446년에 제정된 ‘한글’이 中國으로부터의 文學의 獨立이라면, 「農事直說」의 業業技術은 中國으로부터의 農業技術의 獨立이라 暫定할 수 있다”라고 평가받는 農書이다.

이 農書가 비록 老農들이 시행하고 있던 慣行 農法을 採錄한 것이라 그것은 우리의 農業風土에 맞는 순수한 우리의 農法이라는데 意義가 큰 것이며 이러한 귀중한 農書의 發刊은 그야말로

¹ 金泰昱 「人間 禹長春」

² 高等學校上 p. 139, 高下 p. 15, 中上 p. 140, 155, 高上 p. 139, 高下 p. 35, 中下 p. 12, 27, 高下 p. 15, 30, 35.

³ 崔南善, 「朝鮮常識問答」 p. 221

⁴ 金榮鎮 「朝鮮時代前期農書」 p. 5

世宗大王的 功績을 일층 더 빛나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농업의 역사상 이에 此肩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해방 직후 모든 分野에 앞서 日本의 農業 植民地로부터 실질적으로 名實 共に 解放시켜 준 禹박사의 功績일 것임은 明若 觀火한 事實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定教科 書에는 이에 대한 言及이 전혀 없다.

다음 1655년 申泐이 편찬한 「農家集成」인데 이 農書는 이름 그대로 農學者들이 農書를 集成한 것으로서 世宗의 「勸農教文」「農事直說」, 朱子의 「勸農文」「衿陽雜錄」「四時纂要」 등이 合綴되어 있는 책이다.

또 하나는 저 유명한 燕岩 朴趾源의 「課農少抄」로서 이는 諸家總論, 授時, 占候, 田制, 農器, 耕墾, 糞壤, 水利, 擇種, 播穀, 諸穀品名, 鋤治附備蝗, 收穫, 養牛 등의 項目으로 되어 있는데, 農政에 관한 正祖의 요청을 받고 1799년 이에 限民名田儀 1편을 첨가하여 土地所有의 制限과 農政改革을 강조하기도 한 農書이다.

그런데 앞의 「農家集成」은 그 당시의 농업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고 하여 申泐은 孝宗으로부터 賞으로 虎皮를 받았는데 “農書를 써서 國家의 褒賞을 받은 것은 일찌기 本書를 엮은 申泐과 後日 「課農少抄」를 엮고 그 功이 認定되어 沔川郡廳에서 襄壤府使로 승진된 燕岩 朴趾源밖에는 없다”⁵고 한다.

그렇다면 禹박사는 虎皮나 1階級 내지는 2階級 特進 정도가 아니라 國家로부터 功績을 인정받아 安益泰선생에 이어 해방 후 15년만에 두번째로 榮譽의 大韓民國 文化褒章을 授與받았는데, 이러한 禹박사도 또한 당연히 歷史的 評價와 동시에 그가 가져야 할 位置를 찾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道理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⁵ 金榮鎮 「朝鮮時代前記農書」 p. 197.

禹박사 逝去 당시의 모든 新聞들은 입을 모아 그를 「人間寶」「살아있는 人間 文化財」「잊을 수 없는 사람」「韓國이 낳은 世界的 農學者」라고 하였는데⁶ 이러한 호칭을 얻은 사람은 農業의 歷史에서는 오로지 禹박사 이외에는 없었음에도 禹박사가 逝去한 지 25년 밖에 되지 않는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실정이다. 1985년 정초에 한 新聞은 「大韓民國을 움직여 온 100人」⁷이라는 新正특집을 실었다. 이 기사를 보면 “1948년 大韓民國이 建國된 이래 그 동안 각 분야에서 많은 것을 성취했는데 새해를 맞아 建國과정과 建國 이후를 통해 각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거나 큰 영향을 끼친 人物 100人을 선정했다. 이 특집은 그들을 통해 大韓民國의 歷史를 조명해 보고 우리의 미래를 彫像하는 밑거름으로 삼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며 教授 몇 사람에게 위촉하여 선정하였다는 것인데, 제일 많은 분야가 金九선생, 李承晚박사를 위시한 政治人이 39명이나 되고, 여기에다 大法院 關係와 軍 關係者를 합하면 무려 44명이나 된다. 그리고 學者가 6명인데 國語學者가 2명이요 그 밖에 國史學者, 國文學者, 哲學者, 儒學者가 각각 1명씩이고 自然科學者는 단 한 사람도 없다. 한편 小說家와 詩人이 8명, 畫家가 4명, 企業人이 10명, 그리고 演藝人으로는 배우 金勝鎬씨와 가수 李美子씨도 들어 있다.

이 많은 사람들이 大韓民國을 움직여 왔기야 했겠지만 金九선생, 李承晚박사 등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과연 그중 얼마만큼의 사람들의 이름이 歷史에 남을 것인가는 고사하고라도 政治人도 政治人 나름이요 또한 藝術이나 演藝分野

⁶ 1959. 8. 8일자 한국일보, 1959. 8. 8일자 조선일보, 1959. 8. 12일자 동아일보, 1969. 8. 9일자 중앙일보

⁷ 1985. 1. 1일자 한국일보

도 오늘의 풍성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1950년대, 60년대초의 「饑餓線上에서 허덕이는 民生苦」를 解決하겠다는 口號를 외치던 時節에, 禹박사와 같은 사람들의 피나는 努力과 貢獻을 바탕으로 하여 이룩된 것임을 알아야 하겠다.

그 다음으로 歷代의 學者들 중에 農業내지는 農村問題에 관심을 가지고 農村振興의 方便에 관한 주장을 한 사람으로 17세기 후반의 柳馨遠과 柳馨遠의 思想을 繼承, 發展시켜 星湖學派를 형성한 18세기 前半期의 李瀾, 500여권의 著書를 남겨 너무나도 유명한 丁若鏞, 重農政策에서 벗어나서 商工業을 진흥시켜 國富의 源泉을 삼고 農業의 專門化와 商業化 및 技術의 革新을 통한 生産力 增大를 주장한 유수원 등⁸이 있지만 이분들은 禹박사와는 달리 제각기 자기들의 論據를 주장한데 불과한 學者들로서 그 實現을 위하여 實踐的 力量을 발휘함으로써 그것들을 성취시킨 사람들이 아니다.

다음으로, 天文, 氣象 등의 研究나 貯水池 등의 設置와 같은 것은 國家가 이를 管理 施行한 것이므로 이것들을 論外로 하고 보면, 고려말에 文益漸이 元에 使臣으로 갔다가 木花씨를 가져와서 그의 장인 鄭天益이 栽培에 성공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衣生活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는데⁹ 지금도 慶南 山淸郡 丹城面 沙月里에 소지하는 文益漸棉花始培地는 유명한 곳이며, 世宗 때에 朴서생의 意見을 들어 水車를 이용하여 논에 물을 대게 하여 灌溉의 方法을 편리하게 하였으며,¹⁰ 1442년에는 전국 각지에 測雨器를 설치하고 降雨量을 측정하여 農業에 도움을 주었는데, 이것은 西洋보다 200년이나 앞서 실시한 것으로서 이러한 科學機具의 製作에는 蔣英實,

李蕨 등의 공이 컸다¹¹고 기록하여 유구한 우리 農業의 歷史에서 불과 4사람의 功績만이 國定 國史 教科書에 수록되어 있을 뿐인데, 이분들의 功績과 禹박사의 그것과를 생각해 볼 때 禹박사의 功績 또한 크다는 것은 再言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農業分野 이외의 다른 分野에서는 어떠한가. 藝術部門에 속하는 書藝에서 名筆이라고 하여 教科書에 올려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고려 때의 柳伸, 坦然, 崔瑀, 신라시대의 金生, 姚克一, 楊士彥, 李朝 때의 安平大君, 韓濩, 金正喜, 金正喜의 영향을 받은 田璣, 吳慶錫(吳世昌의 아버지), 신헌 등¹² 12명이 기록되어 있고, 文學部門에 수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를 셈하여 보면 57명에 이른다.

이러한 수효는, 書道이건 文學이건 우리의 金 歷史로 보아 결단코 많은 것이 아닐 뿐 아니라 農業分野와는 다른 分野이므로 그 價值基準이 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禹박사는 農業發展의 歷史的 한 段階를 구축한 사람이며, 이 단계를 빼고는 農業의 歷史를 記述할 수가 없고, 그의 知識과 技術을 전수함으로써 많은 後繼者를 양성하여 農業發展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農業의 科學化가 우리의 살 길임을 제창하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헌신한 분이므로 農業分野이건 다른 分野이건 간에 그 比重을 견주어 보면 당연히 이분이 있어야 할 歷史的 位置를 우리는 헤아려 모셔야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⁸ 高下 p. 25, 27, 29.

⁹ 中上 p. 117.

¹⁰ 中上 p. 140.

¹¹ 中上 p. 140, 158

¹² 中上 p. 96, 高上 p. 59, 147, 中上 p. 159, 中下 p. 35, 高下 p. 44.

Ⅳ. 禹博士에 대한 農業史的 再照明的 必要性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직 禹박사가 우리 나라 歷史에서 차지하여야 할 正當한 位置를 찾지 못하고 있는 理由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우리 農學界에서마저도 禹박사가 성취한 學問的 技術的 成果인 業績이 農業發展의 한 段階를 형성하는 歷史的 課程으로서 把握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禹박사에 관한 것을 體係의 整理해 놓지 못함으로써 歲月이 흘러감에 따라 점차로 구체적인 業績들이 희미하게 잊혀져 가고 다만 偶像的인 傳說的인 人物로 抽象化되고 만 것이다.

우리 나라 農業經濟史를 研究記述함에 있어서도 解放 후 軍政下 新韓公社 시대를 거쳐 政府樹立 후의 經濟開發 5年 計劃까지 언급하면서도 禹박사가 日本으로부터의 種子의 流入을 완전히 봉쇄함으로써 생기는 經濟的 惠擇이나 또는 無菌種薯 生産體系를 확립하고, 端境期 園藝作物 栽培의 지도에 따라 메마른 大關嶺의 農民이 일시에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등 이로 인한 國民總生産의 增加는 정확히 測量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는 그 당시 農業 이외에는 이렇다 할 産業이라고는 없던 時節에 그 寄與度는 틀림없이 큰 것이었다고 추정되는데, 이에 對해서는 한 마디 言及도 없다가,¹³ 실사 禹박사의 業績을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學問的인 確고한 歷史的 段階로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으로서 예를 들면 韓國農業技術의 歷史를 著述함에 있어 禹長

¹³ 朱奉圭 「朝鮮農業經濟史研究」 pp. 315~386

春 박사는 “우선은 급한 대로 原種을 日本으로부터 수입하여 珍島 등지에서 栽培하는 方法을 택하였는데 종자의 質은 우선 제쳐놓고 무우, 배추의 종자를 量的으로 自給하게 된 것은 1955년 경이었다. 이로써 채소 종자의 파동은 일단락이 되었으며” “1차적으로 量的인 문제를 해결한 禹박사는 質的 向上을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1960년에는 不和合性을 이용한 배추의 1代交雜種인 원배추 1號와 2號를 發表”하였는데 “배추의 F₁ 育成은 해방 후 15년만에 성취한 경이적 업적으로서 初期의 극심했던 社會的 혼란과 6·25動亂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10년 미만에 이룩한 業績이다”¹⁴라는 정도로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고, 「育種 및 採種技術」중에서 「分離育種」¹⁵에서나, 「交雜育種」¹⁶에서나 「自家不和合性 利用」, 「雄性不稔性 利用」¹⁷에서나, 또는 「解放後의 採種法」¹⁸에서 나를 막론하고 다같이 學術的이며 技術的인 育種體系의 전개를 추궁, 기록하지 않고 다만 형식적인 결과만을 기록한 것에 불과한데, 禹박사가 확립한 生産體系는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이룩된 것이 아닌 것이다.

더우기 감자(馬鈴薯)¹⁹의 項目에서 보면 「品種의 變遷」에서부터 「遺傳 및 育種技術」, 「種子便新」, 「栽培技術의 發達」, 「種薯」등 상세하게 기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禹박사가 無菌種薯 生産體系를 확립한 사실에 대하여는 一言半句의 언급도 없다.

禹박사는 그의 生涯의 末期에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食糧作物의 하나인 감자의 무균종서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놓

¹⁴ 「韓國農業技術史」 p. 462.

¹⁵ 「韓國農業技術史」 p. 463.

¹⁶ 「韓國農業技術史」 p. 465.

¹⁷ 「韓國農業技術史」 p. 466, 467.

¹⁸ 「韓國農業技術史」 p. 474.

¹⁹ 「韓國農業技術史」 p. 345~335.

지 않으면 누가 이것을 할 것인가”라고 하며 이에 필요한 약간의 豫算을 얻기 위하여 술한 애 피소드를 남기기도 하였다.²⁰

다음으로 「油菜의 生産技術」을 설명하면서 「史的來歷」²¹에서 筆者는 日本의 西洋油菜의 栽培起源이 되며 日本의 B. napus 育種史에 가장 공헌이 컸던 朝鮮種에 대한 日本學者들의 「由來說에 對해」 그 잘못을 비판하였는데 禹박사의 「種의 合成」論文²²이 바로 그 「朝鮮早生」 등 수 많은 油菜種類를 素材로 한 것으로서 油菜의 育種技術에 新紀元을 이룩하였다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世界 育種學 發展에 크게 寄與한 사실은 자랑삼아서라도 당연히 언급되었어야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韓國園藝의 發達の 歷史를 기술한 예를 보면 「韓國近代園藝의 里程碑—禹長春博士」²³라는 훌륭한 題目으로 禹박사의 經歷을 간명하게 소개는 하였으나 「研究開發 業績 概要—菜蔬」²⁴에서 “이 땅에서의 科學的인 試驗研究事業은 1906년에 勸業模範場이 설립되고 난 후부터 體系的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이 日人들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解放 직후에는 이 분야에 종사할 만한 專門學者들의 不足과 施設의 낙후성으로 量的 또는 質的으로 水準 높은 研究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國內에 正規大學 및 大學院課程을 이수한 많은 사람들이 大學 및 試驗場에 들어가고, 한편으로는 先進國에서 最新의 關聯 學問을 연마한 우수한 學者들이 속속 歸國”하여 “즐거워 찬 研究活動을 전개하여 자체적인 栽培技術의

開發과 新品種 育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1945년 解放으로부터 1959년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段階를 무시하고 뛰어넘어 버린 叙述로서, 解放에서 1950년까지의 農業의 混沌과 混亂의 時期를 거쳐, 1950년대의 韓國園藝가 禹박사를 頂點으로 하여 어떠한 陣痛과 苦難을 겪으면서 韓國園藝發達の 基礎를 닦았고, 이러한 것을 발판으로 하여 오늘날의 園藝技術이 축적되어 왔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歷史的인 發展 段階를 도외시한 채 1960년대로 도약하여 大學을 졸업한 사람들과 外國에서 공부한 學者들이 속속 귀국함으로써 비로소 發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記述은 歷史認識의 方法論的 基礎에서부터 再檢討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清淨菜蔬 栽培」를 기술함에 있어서도 “1955년에 유엔軍 및 外國人의 供給과 國內需要를 목적으로(外貨獲得과 健康食生活 향상)으로 麻浦 清淨菜蔬組合과 勿禁清淨菜蔬組合, 그리고 園藝技術院에서 半島호텔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작하였다”²⁵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組合들이 돌연 不毛의 땅에서 잉태되어 태어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動機와 契機가 되는 「힘」이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비로소 歷史의 力動的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歷史認識은 人間活動의 歷史的 把握이라는 점을 도외시하고 다만 표면에 나타난 事象만을 평면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친다면 그것은 歷史를 보는 눈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細畧들이 생겨나기 까지는 禹박사의 現在와 將來를 내다보는 慧眼과 觀智 그리고 불철주야 努力이 있었음을 알아야 하고, 이러한 勵動的 苦痛을 통하여 歷史的 發展이 이룩되는 것인데 이를 무

²⁰ 金泰昱, 「人間 禹長春」, p. 296.

²¹ 「韓國農業技術史」 p. 36.

²² 「禹長春博士 回甲紀念 論文集」 pp. 84~147.

²³ 「韓國園藝發達史」 p. 9.

²⁴ 「韓國園藝發達史」 p. 33.

²⁵ 「韓國園藝發達史」 p. 270.

심히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²⁶

이와 같은 論理는 오늘날 꽃 都賣市場이 점차 그 규모가 커져가고 있고, 그 輸出額數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저 혼자 멋대로 오늘날의 成長을 가져온 것이 아니다. 1950년대 초에 잘 먹지도 못하는데 꽃이 다 무엇이냐 라는各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花卉科를 설치하여 이를 취급하게 하고, 반드시 오늘날과 같은 날이 올 것을 예언한 禹박사의 先見之明에 의한 것임은 누구라도 알만한 事實인데도 우리나라 花卉園藝의 歷史를 기술하고 있는 분들도 “1950년때까지 취미재배 경향이 농후하던 花卉園藝가 1960년대부터 國民所得의 증대와 國民生活의 現代化와 더불어 花叢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한 발전을 하여 企業農이 나타나게까지 되었다.”²⁷라고 하거나 또는 이와 大同小異한 叙述들을 하고 있어^{28,29} 그 軌를 같이 하고 있지만 오늘을 있게 한 歷史的 「힘」의 所在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原原種 및 原種生産 및 普及」이라는 記述에 있어서도 이의 生産過程을 圖表로써 제시하고 여기에 간략한 설명만을 加하는데 그쳤만 그러나, 試驗場에서는 “原種은 1958년까지, 原原種은 1973년까지만 생산하고 그 후에는 民間 種苗會社에서 각각 담당하게 하여 生産”³⁰하게 되었다고 기술한 바로 그 事實이, 禹박사 時節의 段階를 發見으로 하여 韓國園藝가 民間育種이라는 다음 段階로 發展을 이룩하여 갔다는 歷史的 事實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韓國園藝發達の 見地에서 볼 때에는 韓國農業科學研究所→中央園藝技術院→園藝試驗場은 禹

박사의 일터로 세워진 機關이며 禹박사가 귀국하여 돌아가실 때까지는 여타의 農業研究機關과는 달리 전적으로 禹박사의 學問과 技術과, 그 指導에 따라 움직여진 時期이므로 禹박사 逝去 후에야 비로소 禹박사가 남긴 業績을 土臺로 하여 다른 農業研究機關과 같이 일반적 研究機關과 동일한 體制 아래 試驗研究事業이 진행되어 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園藝試驗場 業務라고 하더라도 禹박사가 關장하던 時代와 그 이후는 구분하여야 할 뿐 아니라 發達史的 段階로도 확연하게 구분지워질 것이다.

이러 여러 가지 問題點들이 모여 드디어 “本格的인 菜蔬育種事業은 6·25動亂이 끝난 직후, 즉 1953년 현 園藝試驗場的 前身인 中央園藝技術院이 창설된 후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는데 특히 1950년 禹長春 박사의 환국과 더불어 설립된 韓國農業科學研究所가 國內 菜蔬種子의 自給을 목표로 시작한 優良品種 선발과 선발된 품종의 固定 및 原原種生産의 효시가 되었으나 不幸히도 그당시의 어떠한 記錄도 찾을 수가 없다”³¹라는 아연실색할 叙述을 보게 된다.

韓國農業科學研究所가 禹박사로 인하여 창설된 이래 名稱도 場所도 여러번 바뀌었지만 이 機關은 적어도 官廳인데, 불과 25년 전의 記錄文書들이 滅失되었을 리 만무할 뿐 아니라 더우기 禹박사를 보좌하고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 중에 두 분만이 불행히도 作故하였고, 學校에서, 또는 種苗會社에서 모두 활발한 活動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表現이 곧 바로 農學界에서 조차 禹박사가 10년간에 걸쳐 쌓아올려 놓은 韓國園藝 發展의 不滅의 業績을 정리하고 體系化하여 놓지 못한 탓임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며, 이로 인하

²⁶ 金泰昱 「人間 禹長春」 p. 118.

²⁷ 農業教育教材編纂委員會 「花卉園藝學」 p. 16.

²⁸ 楊水龍 「花卉園藝總論」 p. 27.

²⁹ 金駿錫 「花卉學總論」 p. 16.

³⁰ 「韓國園藝發達史」 p. 189.

³¹ 「韓國園藝發達史」 p. 128.

여 禹박사가 있어야 할 歷史的 位置를 오늘도 찾지 못하고 있는 原因이 되는 것이므로 하루빨리 記錄과 記憶이 喪失되기 전에 關係機關과 人士들이 記錄을 정리하고 優良種子 生産體系나 無菌種薯 生産 등 禹박사가 그의 業績을 수립하여간 모든 分野에 걸쳐 그 歷史的 展開課程을 소상하게 體系化해 놓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禹박사의 業績에 관한 정확한 資料의 缺乏은 가장 정확하여야 할 辭典類 편찬에까지 부정확한 資料가 제공됨으로써 누구나 믿어 의심치 않고 받아들여져야 하고 인용되어야 할 記載內容마저도 정확하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發刊되고 있는 百科事典들을 보면 禹長春 박사는 “더블 펜추니아 꽃의 育種合成에 成功, 다아윈의 進化論을 修正하였고, 種의 合成說로 36년 母校에서 農學博士 學位를 받았다.^{32,33,34,35,36,37}”라고 하였지만 다아윈의 進化論과 관계되는 것은 펜추니아 꽃이 아니라 油菜를 소재로 한 「種의 合成」 論文인 것이고, 펜추니아는 이와는 별도로 100퍼센트의 接꽃을 피게 하는 種子를 禹박사가 만들어 내어 세상을 놀라게 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귀국하여 菜蔬種子의 育種 合成에 성공하였고, 씨 없는 수박과 벼의 一植二收作을 연구하였다”^{38,39,40,41}라고 하였는데, 씨 없는 수박을 우리나라에서 最初로 만들어 보인 것은 물론 禹박사이지만 이는 弟子들에게 育種學의

原理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렇게 씨를 없이 하는 原理를 최초로 수박에 적용하여 發表한 것은 日本의 기하라(木原) 生物研究所인 것이므로 誤解를 가져 올 이러한 敘述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大百科事典類의 禹박사 業績內容이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못한 점을 論外로 하고라도, 이와 같은 잘못된 內容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錯誤라 할지라도 國民에게 미치는 영향은 측량할 수 없이 큰 것이기 때문에 일반 國民들은「禹長春 박사」하면 곧 「씨 없는 수박을 만든 박사」로만 연상하게 되는 根據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러한 狀態는 百科事典이라는 名稱에 비추어 보아도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것을 吾不關焉으로 傍觀만 하고 있다는 것은 學問하는 사람이 취할 바 道理도 아닌 것이다.

V. 結 言

이상 여러 가지 見解를 無禮함을 무 쓰고 赤裸裸하게 皮력한 것은 1950년대는 韓國農業發達史에 있어 절대로 무시할 수 없을 歷史發展의 한 段階로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을 主張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나라 農業의 歷史내지는 韓國史에 있어서 禹長春 박사가 차지하여야 할 當연한 위치와 比重을 정당하게 차지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모든 農學學徒의 義務일 뿐만 아니라 韓國歷史를 紐어가는 한 時代의 國民으로서도 當연한 道理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끝으로 서울대학교 農科大學 學長과 韓國農學會 會長을 지내면서 이러한 時期를 禹박사와 더불어 살아 온 趙伯顯박사가 한 新聞⁴²에

³² 新丘文化社, 「韓國人名大事典」(1967)

³³ 文公社, 「世界人名大事典」(1974)

³⁴ 瑞文堂, 「컬러판 世界百科大事典」(1975)

³⁵ 學園出版社, 「學園百科大事典」(1983)

³⁶ 東亞韓版社, 「東亞 世界大百科事典」(1983)

³⁷ 계동사, 「과목별 학습백과사전」(1984)

³⁸ 노벨文化社, 「世界大百科事典」(1975)

³⁹ 東亞出版社, 「동아학습백과」(1981)

⁴⁰ 국민서관, 「세 학습백과사전」(1983)

⁴¹ 중앙문화사, 「학습백과대사전」(1984)

⁴² 1959. 8. 11일자 한국일보

寄稿한 글 중에서 몇 句節을 인용함으로써 禹 박사 당시의 國民들의 心情을 되새겨 보기로 한다.

禹長春 박사는 故國이 “가장 어려울 때에 돌아와서 가장 의의있는 일을 맡아 했다는 것은 참으로 가룩한 일이며” “우리 나라 사람 생활에 있어 쌀 다음으로 중요한 작물은 무우, 배추를 중심으로 하는 채소류라 하겠는데, 그 種子의 需給상태를 보면 過去는 일부 근소량의 在來種을 제하고 거의 全部를 日本에 의존하여 왔던

것이다. 해방후도 계속해서 公式 非公式의 작투우트를 통하여 日本으로부터 들여오고 있었으나 國內에서 生産되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막는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할 무렵에 禹박사의 歸國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民族을 살리기 위하여 特使를 파견한 것이라고도 하겠으니 지금도 가끔 만일 그때 禹박사가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답답하여질 때이다.”